



4면
전주시·자율방재단
코로나19 함께 극복

전주매일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음 2월 3일) 제24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주 공관위 경선 문제점 제기

전주를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성·불투명성 지적 일어
한 시민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독선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지도가 가장 앞서 있는 예비후보자를 경선에서 탈락시키는 오류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과 독선까지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21일 전주시(을) 선거구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경선 후보자로 이상직 예비후보와 이덕춘 예비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전주를 지역 여론지지도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탈락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그 이유로는 최근 까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최형재 예비후보(사진)가 경선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0일 뉴스에 따르면 전주시(을) 여론조사 결과 최형재 29.3% 이상직 28.6%, 이덕춘 16.8%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 후보자인 정운천과 가상대결에서도 최형재 48.1% 정운천 16.2%로 크게 앞선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최형재 후보를 경선조차 치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최형재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정운천 당선자와 111표 차이를 보였다. 이 표차는 전국 민주당 후보 중 가장 적은 차이였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전국 민주당 후보 중 가장 적은 표차로 석패해 4년 동안 죽을힘을 다해 준비하면서 확연히 달라진 시민의 지지를 온몸으로 느꼈다.”며, 민주당 공관위는 “전주시민과 저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했다. 아울러 “공정하리라고 믿었던 민주

당에서 음습한 밀실 공천, 공작정치의 공평이가 피어났다.”며, “민주당은 예년보다 일찍 21대 총선 공천을 확정하면서 객관적인 상황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기조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 A씨는 “여론이 가장 좋았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왜 경선에 배제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배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깃발만 꽂으면 당선될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으로 참패했듯이, 이번 공천심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게 되면 지난 총선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별취재반

민주, 진안군수 경선 후보자 확정

고준식·전춘성·정종욱 예비후보 등 3명으로 압축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재선거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고준식, 전춘성, 정종욱 예비후보 등 3명을 경선 대상으로 발표했다. 한수용, 정태검, 허석준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고준식



전춘성



정종욱

경선은 권리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결과를 합계하는 방식이고 오는 3월 초, 또는 중순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민주주의 성숙에 노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을 제44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선임 위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3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20년 2월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이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시외버스 하차 승객 발열 체크중’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25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하차 승객들의 발열체온을 체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완산학원, 비위 교직원 39명 징계

비리료 얼룩진 완산학원이 명문사화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선이사장은 전북교육청이 요구해온 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대부분 수용했다. 차상철 이사장(학교법인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사진)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대부분 받아 들

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교원과 기간제 교원, 일반·공무직 39명이 학교를 떠난다.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 10명도 마찬가지다. 총 49명이 학교를 비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6명이다. 이에 완산학원은 42명을 새로 뽑거나 보강했다. 이는 학급수가 줄고 과



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장은성기자

코로나19 유입 사전대비 만전

전북도, 청내 체육관·야외 체육시설 폐쇄
열화상 카메라 설치·실내소독 등 관리 강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방문자와 직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도청사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도는 25일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청내 실내 체육관과 헬스장을 폐쇄하고, 야외 체육시설 출입금지 및 야간조명을 소등한다고 밝혔다.

실내소독은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이번 주에 실시하는 소독은 청내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까지 강화해 실시하며, 민원실과 화장실 등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사 방역을 강화했다.

또한 청사출입 발열자 출입제한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 민원실 앞 출입구에 설치할 계획이며,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 시 일반인과 격리 및 이송 전 대기를 위해 격리공간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2회에서 월4회로 확대하고, 직원 간 밀접 접촉도와 혼잡함을 줄이

기 위해 구내식당 이용시간을 고층과 저층으로 조정했다. 구내식당 휴무일과는 별도로 지역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실국별 주 1회 외부식당 요일제를 지정·운영한다. /김진성 기자

2차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포함 전북도민 2명, 코로나 능동감시

2차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에 포함된 전북도민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이 됐다.

전북도는 24일 오후 5시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2차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28명 중 전주·남원 시민이 1명씩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 인천공항검역소에서 특별입국절차를 밟은 후 리무진 버스를 통해 지역에 도착했다. 이후 119 구급차량을 통해 남원과 전주로 각자 귀가 조치됐다. 이들은 발열 등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